

이스라엘의 大學教育

柳 泰 永
(建國大 農業教育科)

1. 머리말

3,000 년만에 조국을 다시 찾은 유대 민족, 不毛의 사막을 개척하여 農村을 일으키고 온 국민이 한결같이 단결하여 國家의 安保를 지키며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歷史는 뼈를 짚는 고통과 살을 찢기우는 비참한 수난사 속에 점철되어 꺼질 듯 꺼질 듯하면서도 명맥을 이어와 文化의 꽃을 피운 유대 民族의 씨알은 바로 이스라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수한 민족으로 學界, 言論界, 財界를 주름잡고 활기차게 약진하는 이들의 원동력은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년 시절부터 받은 교육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열어 주는 교육 제도는 어느 나라보다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생후 8일만에 할례를 받는 의식으로 유대 민족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남이 확인된다. 이후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교육은 가정과 회당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교육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리하여 유대 민족의 씨알은 성장하며 솔방울 씨 하나같이 미미하고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이었지만 성장한 후에는 온갖 날짐승들이 깃 틀고 궁궐을 지을 수 있

는 材木으로까지 쓰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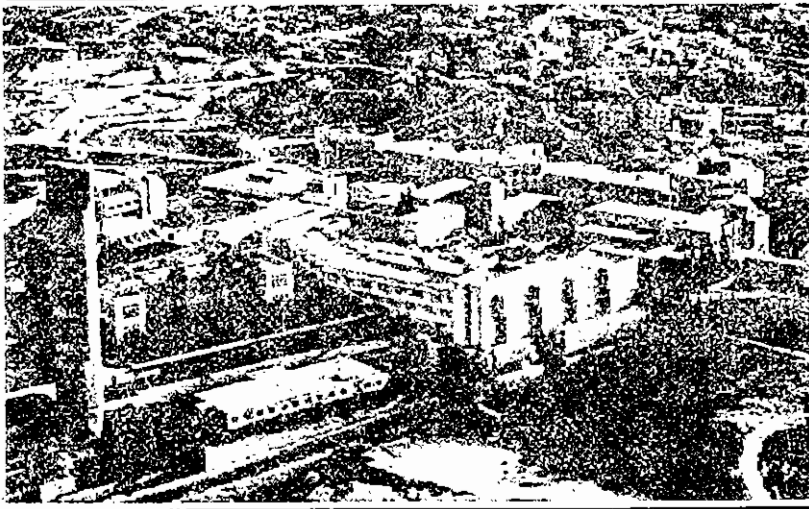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교육이 시작되는 것은 유아 때부터이다. 에굽에서 유대 민족을 이끌어 온 지도자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엄격한 궁중 교육을 받았으나 유아 시절부터 그의 친모였던 유모의 교육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친의 교육은 어느 교육기관보다 중요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유대인의 어머니의 자녀는 무조건 어머니가 될 수 있으나 유대인 아버지의 아들은 무조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도 어머니의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

오늘의 이스라엘 대학교육의 모태도 따져 보면 그 근원이 유아교육 때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스라엘의 中等教育

이스라엘은 1953년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유대 민족 기구 또는 영국 총독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에서 흡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교육도 모두 국·공립으로 운영



◀ 엄격한 유아교육을 그 모태로 하는 이스라엘의 대학교육은 모두 국·공립으로 운영되며, 종교적인 학교와 일반 학교로 그 특색을 달리하고 있다. 사진은 히브리대학교 전경.

되고 있으며 종교적인 학교와 일반 학교로 그 특색을 달리하고 있다.

1969년에는 국회에서 교육개혁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제를 개혁하여 8학년의 국민종합학교와 4년제의 중등학교제로 되어 있으며 초등교육기관에의 입학은 학군제를, 중등교육기관에는 학군제와 관계 없이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초등교육 8년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 형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교육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 비슷하다. 즉 중등교육은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사회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중등교육에서는 고등교육을 위한 기초 학문을 가르치거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였다.

중등교육에서는 대부분이 기술교육을 통하여 기능공 내지는 기능사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력으로 양성된다.

초등교육 졸업 학년에서 학부모와 긴밀히 의논하여 학생의 진로에 따른 학급이 정해지면 교사는 학생이 자기가 택한 진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한다.

중등교육을 마치면 우선 군에 입대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치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난 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3. 이스라엘의 大學教育

이스라엘의 대학교육은 모두 국가에서 경영하며 학부에서는 좀더 높은 인간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전문 분야의 학문 연구를 위한 기초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가서야 비로소 전문가의 학문을 연구한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대학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84년도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 총 인구 3,404,700명 가운데 64,605명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으며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의 총 인구는 19%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고등교육의 인력 배출 계획은 역시 경제 발전과 교육 발전에 부응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해마다 교육 시설이 늘어나고 산업 시설이 확장되면서 여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 수급 및 산학협동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학문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현재 이스라엘 전국에 55,000명의 대학생들이 7개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다. 재학생의 40%는 자연과학 계열이고 그 나머지는 인문·사회과학 계열로 분포되어 있다. 모든 대학들이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늘어나

고 시설 확충, 교·강사 확보, 실험 실습 시설의 확충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7개의 국·공립대학교들은 전국에 지역별로 안배되어 설치되어 있다. 수도 예루살렘(Jerusalem)에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가 있고, 북부 하이파에는 하이파기술대학과 하이파대학이 있으며, 남부에는 브엘셰바(Beersheva)에 브엘셰바대학교가 있다. 중부에는 텔아비브(Tel Aviv)에 텔아비브대학과 바일란대학, 그리고 르호봇(Rehovot)에 와이즈만 자연과학연구원이 있다.

이스라엘의 대학들은 모두 특색 있는 학교로 설립되거나 육성되어 그 개성이 돋보이고 있다. 어느 대학은 사막생물학 및 열대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공업 단지 근처에 세워진 대학은 과학 기술 분야의 세계적 특성을 갖게 되며, 유대 종교와 민족 문화 연구는 어느 대학이 맡게 되는 등 대학의 특색을 부각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4. 예루살렘 히브리大學校

예루살렘 히브리大學校(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에 이민해 들어와 최초로 세운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스라엘 수도 동쪽에 우람하게 자리잡고 있다.

1925년 4월 1일 히브리 民族 학원으로 교수 33명, 학생 164명으로 개원하여 금년으로 회갑이 넘은 63년째가 되었다.

63년이란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나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와 세계 명문대학으로 발전했다. 자칭 세계 10대 명문대학의 하나라고 하니 가히 그 발전과 시설을 짐작할 수 있을 줄 안다.

히브리大學 속칭 예루살렘大學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7개의 대학 가운데 가장 歷史가 깊고 시설이 방대하다. 캠퍼스는 예루살렘의 동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로 나뉘어져 18,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혜의 샘을 가꾸고 있으며 전임교수와 강사들이 3,000여 명이나 되어서 학생 7명당 교수 1명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 시설보다 학생 복지 시설이 5배 정도가 되어 있는 학원 도시를 이루고 있다. 학생들의 기숙사는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류 시설로 되어 있다. 이 기숙사는 모두 석조 건물로 기숙사촌 안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시내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정류소가 여러 개 있어 시내 요소 요소와 고층 기숙사 아파트를 연계하여 운행하고 있다.

히브리대학은 세계를 지배했던 히브리 문명의 연구 본산지로 학문의 각 분야가 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 세계 각국 유대 민족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교수로 임용하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만도 이 대학에 많은 현직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구미 각국의 세계 명문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교수 교류, 학생 교류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단과대학으로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법과대학, 교육대학,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 등이 있으며 학과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 예산도 실험실습비는 학과장 전결로 지출되고 총장은 2년 임기의 단임제이며 학장도 단임이다. 학과장은 선임자 순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보직 맡는 것을 기피하여 학장 2년을 하면 6개월간의 유급 휴직을 하여 연구를 보충할 수 있게 하였고 총장은 근무 연한만큼 안식년을 주어 해외에 나아가 연구하도록 하였다.

해외에서 유학해 온 학생들이 많아서 1970년대에는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4,000여 명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온 학생들로 대개 유대 민족의 해외 교포 자녀들이다. 러시아나 헝가리 등 동구권에서 온 학생, 남미와 멀리 남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까지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오고 있다.

5. 테크니온

테크니온(Technion)은 이스라엘 기술대학으로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의 가멜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1924년에 창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대학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문 영역별 학과를 보면 항공공학과, 농업기술과, 건축공학과, 도시계획과, 화학과, 전자공학과, 식품공학과, 생화학과, 산업경영학과, 자료공학과, 수학과, 원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등이 있으며 공업교육 교사 양성반이 있다. 현재 8,500 명의 학생과 1,500 명의 교수진이 있으며 대학교 인근에 대학촌을 형성하여 대학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여서 그런지 항공대학이 따로 없고 Technion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군사교육도 군부의 위탁 교육으로 이곳에서 유능한 공병지휘관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공학과와 원자력학과의 특수 분야에는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으며 출입도 금지시키고 있다.

6. 텔아비브大學校

텔아비브대학교(Tel Aviv University)는 신설대학으로 1956년에 창립되었다. 그러나 주변의 대도시를 배경으로 급성장한 대학으로 그 규모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문과대학, 자연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경영행정대학, 교육대학, 사회사업대학, 음악대학, 과학기술대학 등 광범위한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 과학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연극영화전공, 신문방송전공의 학교도 있으며 중등과 아프리카연구소가 설치되어 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13,700여 명의 학생에 2,000여 명의 교·강사를 확보하고 있다. 텔아비브대학은 우리나라 서울의 漢陽大와 자매 결연(1987)을 맺고 교수 교류, 유학생 교류, 공동 연구 등 학문적 교류를 활발하게 계획하고 있다.

현재 텔아비브대학은 20,000 명의 학생들이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7. 벤구리온大學校

이스라엘 남부 건조 지대와 사막 지대의 중심 지역에 자리잡은 브엘셰바에 세워진 대학이다. 유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개척하여 정착한 도

시가 바로 브엘셰바이며 여기에 새로운 학교가 들어선 것이다. 이 대학이 바로 벤구리온대학교(Ben-Gurion University of Negev)인데 벤구리온大學은 1969년에 창설되어 이제 겨우 19년 밖에 안 된 학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네게브大學校(University of Negev)라 하여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미미한 발전을 해왔으나, 1973년 이스라엘의 국부(國父)라 알려진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서거하자 국가적인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명칭을 벤구리온대학교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신설 학교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서열에 오르려고 이스라엘이 국력을 다하여 육성하고 있는 大學이다. 벤구리온대학은 세계 각국의 명문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교수 교류, 학생 교류, 공동연구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大學으로 알려져 있다.

벤구리온대학의 특징은 자연과학 분야이며, 특히 사막생태연구소는 세계 제일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대학의 기숙사 시설 또한 매우 좋아 대규모의 기숙사 및 학생 복지 시설을 완전 구비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의 아파트들을 몇 등씩 매입하여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

단과대학으로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이 있으며, 소련에서 새로 이민해 온 교수와 학생들이 많은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 서울의 建國大와 1974년 자매 결연을 맺고 학생 교류, 교수 교환 방문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이 대학의 분교를 설치하여 우선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이 와 있으며 강의 시간표나 학점을 완전히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에 따르고, 졸업하면 미국 대학의 졸업장을 주게 된다. 물론 강의는 영어로 하되 교수진은 벤구리온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벤구리온대학은 재학생이 5,0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이다.

8. 하이파大學校

하이파대학교(Haifa University)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항구 도시의 가멜산 위에 세워진 학교로 1963년에 창립되었다. 하이파대학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되었는데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육대학, 사회사업대학 등이 있다.

이 대학은 스트레스 심리학 연구로 유명하며 아랍과 유대 민족 문화 연구의 업적이 큰 학교이다. 재학생의 10%가 아랍 학생과 두루족(Druzes)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학생들은 6,500여 명에 이르고 이스라엘 북부지역의 일반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9. 바일란大學校

바일란대학교(Bar-Ilan University)는 이스라엘 유일의 고등 종교교육기관으로 정통파 유대인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의 생활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에 이스라엘 중부 도시 텔아비브市 교외에 있는 라맛간(Ramat Gan)에 창립되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단과대학으로는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교육대학 그리고 사회사업대학이 있으나 유대주의 연구에는 세계 제일의 명문대학이 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에는 모세 5경인 토라연구소가 엄청난 연구 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

사회교육 일환으로 단기 과정인 유대민족주의 연구 과정이 있어서 해외에서 이민해 온 지도자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설치된 랍비신학파가 있어서 유대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현재 재학생은 모두 10,000여 명이고 2,000여 명의 전임 교·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10. 바이츠만研究院

바이츠만연구소는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과학 기술 및 기초과학 연구 개

발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1934년에 세워진 다니엘시이프연구소(Daniel Sieff Research Institute)를 이스라엘의 독립 국가 형성 후인 1949년에 바이츠만연구소로 개편·확충하였다.

본 연구원은 학부는 설치하지 않고 석·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을 설치하여 주로 연구하는 기관이다. 엄밀하게 말하여 고등교육기관이라기보다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 종사자들에게 연구 실적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형태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재학생이 500여 명인데 전문 연구 교수진들이 1,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11. 結 語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교육은 그 제도적인 면에서나 실제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유대 종교의 聖典에 기본을 두고 다양한 복합 문화국에서 통일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 지역 사회 학교의 운영, 산학협동 체제의 실현 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사회 건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교육 입국의 기본 사상 아래 교육을 통한 사회 개혁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모든 정당 및 사회 단체가 느끼고 있어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 발전에 있어서 교육 발전이 공헌한 바가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교육의 여러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 교육은 개혁 정신을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宣揚하였다. 그리하여 사막과 건조 지대를 개간하여 옥토로 바꾸어 농업 발전을 이루어갔다.

둘째, 이스라엘 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유대교라는 종교 의식을 통하여 생후 8일만에 세례를 받는 것을 위시하여 종교적 전통과 풍속에 따라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청소년 운동 등을 벌이는 사회에서 허

브리어와 유대 풍속과 전통 및 히브리 문화를 전수하고 이를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하여 실천하고 있다.

세째, 이스라엘은 교육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교성에서는 교원들의 봉급과 인건비 그리고 교과과정 등에 관한 것만을 관장하며 나머지 행정은 지방자치체에 의해 운영되고, 지역 사회 학교교육을 최대한 실천하고 있다.

네째, 교육의 기회 균등을 최대한 실천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은 유대 민족이 아니더라도 평등하게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전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아랍인을 위한 학교를 국

립에 편입시켜 똑같은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신체 장애자를 위한 특수 교육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학습 부진아에 대한 과외 특별 수업 등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스라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임을 느끼도록 강조하는 유대인 의식 교육을 유아 때부터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얼을 지키기 위해 각급 학교의 모든 교과과정에서 이 유대인 의식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애국심이 강하게 되고 국난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힘이 용솨음치게 되는 것이다. *